



## 저작자표시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노 주 환 교수 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천진난만한 아이의 형상  
표현 연구

-본인 작품을 중심으로-

2020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조 소 과

최 하 나

천진난만한 아이의 형상

표현 연구

-본인 작품을 중심으로-

노 주 환 교수 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9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조 소 과

최 하 나

# 인 준 서

최하나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19 년 11월

심사위원장\_\_\_\_\_ (인)

심 사 위 원\_\_\_\_\_ (인)

심 사 위 원\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 논문개요

사람으로 살아가며 피할 수 없는 경험들은 생로병사이다. 그중 자신의 생의 시작과 끝을 온전히 기억하고 인지하는 사람들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부모들은 자식이 겪는 경이로운 생의 시작을 직접 지켜보는 놀라운 시간을 갖는다.

한 생명이 탄생하고 새로운 시간이 시작되어 점차 사람의 형상을 갖춰가고 사람으로의 요건들을 갖춰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 또한 커다란 즐거움이였다. 그러한 과정 속에는 즐거움뿐 아니라 사람이 느끼는 모든 희노애락이 담겨 있다. 한 아이의 어머니가 되어 일상의 놀라운 순간들을 지켜보는 것뿐 아니라 아이의 성장과 함께 본인도 어머니로서 성장해 나가고, 그 삶 속에서 아이의 천진난만한 모습들을 통해 마음의 치유를 받게 되었다. 이러한 아이와의 일상을 통해 어머니로서 느낀 경험과 감정들을 천진난만한 아이형상의 작품으로 표현코자 하였으며, 그러한 과정들은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서의 어려움처럼 작가로서 한 작품을 만드는 괴로움이자 즐거움이였다. 본 논문은 아이를 부모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경험하면서 아이가 주는 행복과 즐거움, 또 부모로서의 어려움과 극복에 대해 작품으로 표현하고 분석하였다.

본 논문은 2018년 석사 청구전에 출품한 작품들을 중심으로 작품형성 배경과 표현방법 등을 서술한 것으로 총 3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 1장 서론에서는 연구 목적과 그 방법에 대해 서술하였다.

제 2장 본론에서는 본인 작품의 근거가 되는 작품의 형성 배경과 작품 표현 방법에 대하여 서술하였으며, 작품 분석에서는 조형적인 특성과 제작 방법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제 3장 결론에서는 본 논문의 내용과 작품을 총괄적으로 정리하고 앞으로  
작업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 목 차

## 논문개요

I. 서론 .....	1
II. 본론 .....	3
1. 작품형성배경 .....	3
1) 아이와 부모 .....	3
2) 아이를 통한 위로와 성장 .....	6
2. 작품의 조형적 특성과 표현방법 .....	8
1) 천진난만한 아동의 형상 .....	8
2) 애착 대상으로서의 인형 .....	11
3. 작품 분석 .....	14
III. 결론 .....	30

## 참고문헌

## ABSTRACT

## 작 품 목 차

- 【 작 품 1】 독수리가 되고 싶은 참새,  
브론즈, 오일파스텔, 250x180x380mm, 2018 .....14
- 【 작 품 2】 어부바,  
FRP, 오일파스텔, 250x200x600mm, 2018 .....16
- 【 작 품 3】 또오?,  
FRP, 오일파스텔, 200x60x340mm, 2018 .....18
- 【 작 품 4】 기대어앉아,  
FRP, 오일파스텔, 인형오브제, 250x250x300mm, 2018 .....20
- 【 작 품 5】 고요한 밤,  
FRP, 오일파스텔, 250x40x320mm, 2018 .....22
- 【 작 품 6】 크앙,  
FRP, 오일파스텔, 240x300x 720mm ,2018 .....24
- 【 작 품 7】 나 이쁘지이,  
FRP, 오일파스텔, 250x150x450mm, 2018 .....26
- 【 작 품 8】 청개구리,  
FRP, 오일파스텔, 230x150x450mm, 2018 .....28

## 1 . 서 론

아이가 태어나 부모가 되는 순간을 기점으로 그 전의 삶과 그 후의 삶으로 나누어지고 많은 부분이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대부분 부모님의 밑에서 자식으로 성장하고, 성인이 되면서부터 스스로 주체가 되어 본인을 중심으로 생각하며 생활하는 것에 익숙한 삶을 살게 된다. 어느 순간 결혼을 하고 본인 중심이었던 생활은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배우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되고, 후에 아이를 가지고 출산하게 되면서부터 이전의 온전한 ‘나’의 삶이나 ‘아내’로 살아왔던 삶과는 다른 부모, ‘어머니’의 삶이 펼쳐진다.

영국의 극작가 조지 버나드 쇼는 ‘부모란 하나의 중요한 직업이다. 그렇지만 여태까지 자식을 위해 이 직업의 적성검사는 이루어진 적이 없다.’라고 부모가 되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었다. 적성검사는 차치하고서라도 취업을 하려면 최소한의 취업 준비를 해야 하고 어떤 일에는 항상 선행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 본인의 부모로서의 삶은 준비 없이 갑자기 시작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결혼과 동시에 이제 곧 부모가 된다는 것은 분명 생물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알고 있었지만, 마음과 정신적으로는 준비가 부족하였다.

태어나면서 부모인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부모로서 역할을 처음부터 능숙하게 해나가는 이는 없을 것이다. 부모가 되어가면서 수없이 겪게 되는 실수와 마음의 상처들이 아이를 돌보며 다시 용기를 얻고 위로받게 되는 과정을 반복하게 되었다.

본인의 작품들은 주로 천진난만한 딸아이의 일상의 모습을 주로 담고 있다. 초보 부모, 초보 어머니로서 아이를 키우며 실수하기도 하고 그 실수 속에서 마음의 상처받은 것들을 아이의 사랑스럽고 천진난만한 모습들을 통해 행복해하며 위로받고 성장하게 되었던 그러한 모습들을 작품으로 표현하고

자 하였다. 이러한 작품들은 비단 본인의 아이 이야기가 아니라 어느 가정  
에나 있는 아이들의 모습이고, 조각가로의 특별한 시선이 아니라 보통의 가  
정에서 아이를 사랑스럽게 바라보는 여느 엄마의 시선과도 같을 것이다.

본 논문은 본인 작품이 어디서 시작하였는가에 대해서 논하고, 본인 작품  
에서 드러나는 표현의 특징과 각각의 작품에 담겨진 제작 의도에 대해서 분  
석하였다.

## II. 본론

### 1. 작품형성 배경

#### 1) 아이와 부모

아이는 부모를 보면서 성장한다.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다. 다만 부모 또한 아이를 돌보면서 성장한다. 모든 부모는 태어날 때부터 부모가 아니라 자식으로 시작한다. 그리고 생애 처음으로 부모가 된다. 연습 없이 부모가 되는 것이다.

성인이 되어 부모님에게서 독립해 온전히 본인이 주체가 되어서 본인 중심으로 생각하고 지내왔던 삶과 어머니의 삶은 너무나 다르다. 본인을 먼저 생각하고 움직이기보다는 늘 항상 아이가 먼저고 아이를 위해 움직이게 되는 것이 어머니의 삶이다. 아이를 돌보며 그렇게 점차 어머니로 익숙해지고 부모 노릇을 하게 된다. 그리고 아이는 그러한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자라난다. 부모와 자식은 떼어 놓고 볼 수 없는 필수 불가결의 관계인 것이다.

21세기에 들어서서 세상이 많이 변하였고, 인간이 살아가는 전반적인 환경도 많이 변했지만, 갓 태어난 아기가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우리 조상의 조상들이 살았던 시절, 더 나아가 인류가 태동했던 시절부터 갓난아기들은 언제나 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다. 여태까지 변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사실은 인간은 미성숙한 상태로 태어난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 인간은 근본적으로 의존적인 상태로 태어난다.<sup>1)</sup>

부모와 아이를 어찌 분리해 놓고 생각할 수 있겠는가. 옛 어른들은 자식을 보면 부모를 알 수 있다고 하였고, 부모를 보면 자식 됴됨이를 볼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것은 단순히 귀납적인 추론이 아니라 환경적으로 자식이 태어나서 거의 모든 시간을 부모와 함께하기에 부모를 닮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어머니는 10달 동안 아이를 품고 있고 모유 수유를 하면서 아버지보다 아이와 좀 더 정서적으로 더 닮게 된다.

아이와 본인은 상당 부분에서 닮아 있었다. 물론 아이의 아버지 모습도 닮아 있지만, 본인뿐만 아니라 아이의 할머니, 할아버지 모습까지도 닮아 있었다. 생김새뿐 아니라 보지 못한 부모에 이르는 행동까지도 나타나게 된다. 생김새가 유전자에 녹아 있듯 행동하는 것도 닮아 있었다. 그러한 모습 중에서 부모의 좋은 모습뿐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맘에 들지 않거나 부족하게 생각되는 부분을 아이가 닮기도 하고, 본인 스스로가 잘 인식하지 못했던 나쁜 행동까지 닮아 있는 모습을 발견하곤 한다.

아이는 부모의 거울이다. 아이의 모습에서 본인의 모습이 투사되어 보인다. 아이의 모습을 작품으로 표현하였지만, 그 속에서 본인의 모습을 보곤 한다. 그러한 관점에서 본 모습들은 본인 스스로가 본인을 바라보는 것보다 훨씬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 그러한 관점 속에서 본인이 알지 못했던 본인의 행동이나 모습, 생각들이 보인다. 또 자식의 입장에서 바라보던 세상과 부모가 되어 바라보는 세상은 많이 달라져 있다.

아이를 키우는 그간 몇십 개월의 시간은 정말이지 본인의 삶 속에서 가장 지난한 과정이었다. 본인 부모님의 말씀처럼 자식을 키워보면 부모의 노고를 안다고 하더니 정말 본인을 키워준 부모님께 죄송한 마음이 들 정도로 육아는 힘든 것이었다. 삶이 가혹하면 가혹한 대로,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러운 대로 인간은 삶의 체험 내용을 예술형식 속에 표현하며 삶을 아름답게

---

1) 안느 르페브르, 『100%워니캣』, 김유빈 역, 한국심리치료연구소, 2016, p.13

승화시켰고 또 그 속에서 위안을 찾아왔던 것이다.<sup>2)</sup> 이처럼 본인도 육아의  
어려움과 힘들었던 감정들을 아이의 천진난만함으로 위안을 받았다.

---

2) 이주영, 『예술론 특강』, 미술문화, 2007, p.15

## 2) 아이를 통한 위로와 성장

아이의 천진난만한 모습들을 표현하였는데, 작품 속에서 본인의 모습들도 투사되어 보인다. 외형적인 모습이 닮았기도 하지만 그 모습들 속에서 본인의 어릴 적 모습을 떠올리기도 하고, 아이와 함께 그 시간을 보내던 본인의 모습이 그려진다.

처음부터 갓난아기는 어머니의 행동에서 모자라고 부족한 부분-부족하지만 유익하게 부족한-을 창의적으로 메우면서 ‘충분히 좋은 엄마’로 만드는데 자신의 역할을 다 한다.<sup>3)</sup> 좋은 어머니는 본인 스스로가 되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 아이를 통해 만들어진다고 생각한다. 아이가 점차 성장함에 따라 아이로 인해 어머니인 본인도 점차 성장하게 되었다. 부모로서의 능숙함이 아니라 아이가 무언가를 해나감에 따라 본인도 점차 나아짐을 느꼈다. 가령 언어의 경우 아이가 알아듣는 단어가 적고, 아이와 종일 같이 시간을 보내고 대화를 하다 보면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져 단어의 수가 줄고 의태어나 의성어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아이가 자라나면서 표현하게 되는 단어가 많아지고 아이의 사고에 따라 움직임이다 보니 아이와 함께 성장하는 것처럼 느껴지곤 했다.

아이와 눈높이를 맞춰 어릴 적으로 돌아가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기분이었다. 다시금 인형이나 장난감에 눈을 돌리고 같이 율동을 하고 즐거워하고, 아이가 아프면 같이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났다. 이처럼 부모는 아이와 심리적 동일성을 띄게 된다. 어떠한 부모는 자신의 배움이 부족하다고 느껴져 자식의 학구열을 높이기도 하고, 또 본인보다 더 높은 사회적 위치가 되거나 금전적으로 나아지는 모습을 보며 대리만족을 느끼곤 한다.

아이가 상황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나아짐으로 인해 받는 대리만족도 있겠지

---

3) 안느 르페브르, 『100% 위니캣』, 김유빈 역, 한국심리치료연구소, 2016, p.22

만 아이 자체의 천진난만한 미소만으로도 부모는 힘들었던 마음이 눈 녹듯이 녹곤 한다.

【작 품 2】, 【작 품 4】이 그 모습을 표현한 작품들이다. 작품에서 보이는 오랑우탄 인형은 작가 본인을 투사하는 매개체이자 아이에게는 놀이의 대상인 애착 인형이기도 하다. 【작 품 2】, 【작 품 4】에서 본인은 어머니로서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친 마음을 아이의 해맑고 천진난만한 모습으로 치유되고 아이와 교감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작품들이다. 【작 품 4】 기대어 앉아의 작품에서 보이는 축 늘어진 인형의 뒷모습은 지친 어머니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누구에게나 어머니 노릇은 힘이 들고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어머니는 아이를 통해 다시금 위로받고 성장하게 된다. 삶이 가혹하면 가혹한 대로,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러운 대로 인간은 삶의 체험 내용을 예술형식 속에 표현하며 삶을 아름답게 승화시켰고 또 그 속에서 위안을 찾아왔던 것이다.<sup>4)</sup>

육아와 방법에 관련된 서적과 자료들은 많았지만, 이 자료들이 본인의 아이에게 100% 적용되지는 않았다. 늘 변수는 존재했고 아이에게 모든 것들을 해주지 못하는 날이면 본인은 새벽까지 잠들지 못하는 날들이 늘어만 갔다. 이는 본인만이 겪는 특별한 이야기가 아니라 세상 모든 어머니들이 겪는 이야기다. 누구나 다 좋은 엄마가 되고 싶지만 처음 해보는 엄마 노릇은 정말 힘이 들고 어려운 일이다.

충분히 좋은 엄마란 최선을 다해 헌신하는 엄마로서, 부족한 점도 있고 실수를 할 수도 있지만, 이를 개선하는 일 또한 가능한 엄마이다.<sup>5)</sup> 어머니도 아이를 통해, 아이와 함께 성장하게 된다. 육아로 인한 어려움과 갈등들이 매 순간마다 일어났지만, 그러한 감정들은 아이를 통해 금방 잊게 되고 위로받게 된다. 아이가 즐거워하면 나도 즐겁고 아이가 힘들어하면 나도 힘들

4) 이주영, 『예술론 특강』, 미술문화, 2007, p.15

5) 안느 르페브르, 『100% 위니캣』, 김유빈 역, 한국심리치료연구소, 2016, p.44

다. 반복되는 과정 속에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아이와 함께 행복해할 수 있기 때문에 부모는 아이와 함께 성장하는 것이라 생각 한다.

## 2. 작품의 조형적 특성과 표현방법

### 1) 천진난만한 아동 형상

본인의 작품에 나타나는 아이의 형상은 실제 육아를 하면서 기억에 남았던 딸아이의 모습들을 형상화하여 작업한 것들이다. 나의 딸아이의 신생아 시절부터 대략 36개월에 이르는 유아기의 모습들을 담고 있다. 본 논문을 쓰는 지금에도 딸아이가 39개월 정도이기도 하지만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신비롭고 행복했으며, 반대로 힘들었던 시절이었기도 하다. 그 시절은 아이에게도 나에게도 소중한 시간들이었기에 작품으로 표현하여 두고 싶었다. 아이의 행동에는 희로애락의 본성이 굉장히 단순하고 다양하게 나타났지만, 지금에 와서 표현된 모습들을 보면 많은 감정 중에서 대개가 행복하고 사랑스러운 기억들이 대부분 표현되어 있다. 아마 엄마의 시선으로 바라본 기억들이어서 그렇게 표현되었다고 생각 된다.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의 아이는 신체적인 욕구와 정서적 욕구만을 가진 존재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지구상에서 가장 취약한 존재다. 그리고 언어의 세계와 접하면서 차츰 사회적 존재가 된다.<sup>6)</sup>

이와 같이 처음에는 아이의 모습은 혼자만의 감정 표현이었다고 하면, 보이지 않는 곳에는 항상 대상인 본인이 있다. 둘의 관계는 하나의 작은 사회이기도 하고 그 속에서 많은 소통이 일어난다. 그러한 소통 속에서 어른들의 관점과는 다른 아이의 천진난만한 시선이나 표현을 볼 수 있었다.

유아는 성장함에 따라 점차 누워만 있다가 기어 다니고 서서 걸어 다니게 된다. 유아가 서는 자세가 확립되면 유아는 세상을 다른 조망으로 보게 되며, 보행은 그의 앞에 새로운 전경을 열어 준다. “자기 세계의 위대성과 자

---

6) 사우 햄마 카노바스, 『엄마라는 직업』, 유혜경 역, 이마, 2016, p.80

기 능력에 도취 된다. 자기애가 최고조에 이른다.” 눈을 반짝이는 유아는 자신감에 넘치며 여기저기를 아장아장 걸어 다니면서 탐색하고 개구쟁이 짓을 한다. 새로운 것을 발견할 때마다 유아의 표정에서 기쁨을 읽을 수 있다.

이처럼 아이는 새로운 것들에 호기심을 가지며 순수한 시각으로 세상과 마주하게 된다. 순수한 아동의 형상은 르네상스나 바로크시대의 회화나 조각에서 푸토(putto)<sup>8)</sup>의 형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푸토는 통통하고 사랑스러운 아기천사의 모습으로 순수함을 대변하고 있다. 아기천사들은 대체적으로 예수가 나타나는 장면이나 성모마리아 혹은 그리스 신화의 신들과 함께 작품 속에 등장한다. 아기천사들은 주변의 상황이나 누군가가 옆에 있는가에 구애받지 않고 시종일관 순수한 몸짓과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나타난다.

본인의 아이도 어떤 상황이나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항상 솔직한 감정을 표현한다. 그래서 본인의 작품 속 아이는 늘 솔직하다. 감정에 솔직한 모습이다. 어느 정도 자라나 주변의 환경을 인지하기 시작한 후부터는 아이의 눈에는 모든 것이 신기한 것들 투성이다. 세상의 모든 것들에 호기심으로 순수한 눈으로 바라보는 모습들이 작품에 녹아 있다.

아이의 모습에서 나의 모습을 보기도 하였는데, 대부분의 여자 아이들이 그렇듯 본인도 어머니의 반짝이는 화장대에 놓인 화장품으로 얼굴을 영망으로 만들기 일쑤였고, 그 많던 스케치북을 두고 기어코 벽에 낙서를 해서 어머니께 혼이 나기도 했었다. 그랬던 본인의 모습을 옆에서 지켜본 것처럼 아이도 【작 품 7】 , 【작 품 8】 과 같은 행동을 했다.

아이들은 보통 모방으로부터 학습을 시작한다. 부모의 행동이나 말투를 받

---

7) 해밀턴 N 그레고리, 『대상관계 이론과 실제』, 김창대, 이지연, 김진숙 역, 학지사, 2007, p.71

8) 푸토(putto) ‘유아(幼兒)’라는 뜻. 특히 르네상스기의 이탈리아에서 제단(祭壇)이나 묘묘의 장식 모티브, 또한 독립된 감상용 조상(彫像)으로 흔히 다루어졌다. 고대 말기에 자주 보이던 큐피드 상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서, 르네상스 기에 있어서의 유행은 도나텔로에서 시작된다고 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복적으로 따라 하며 학습하고 성장하게 된다.

모방 학습이란 유기체의 내적, 능동적인 인지 과정을 증시하는 인지학습의 한 형태로서 아이가 언어나 다양한 사회적 행동을 부모나 다른 사람의 행동을 모방함으로써 습득하게 되는 과정을 말한다. 모방 능력은 종 특유의 행동이며 일상생활 속에서 매우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모방하는 사람이 별다른 인식을 하지 못한 채 다양한 행동목록들을 습득하고 반복할 수 있게 된다.<sup>9)</sup>

그러한 모방은 학습에서 그치지 않고 또 하나의 놀이로도 표현되기도 하였다. 아이는 본인과 모방 놀이의 행동을 통하여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고, 감정을 이입하는 공감의 단계로 성장하기도 한다.

이러한 ‘모방 능력’에 대해 하버드 펠릭스 바르네켄<sup>10)</sup> 교수는 ‘인간은 생존을 위한 모든 능력을 선천적으로 갖추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모방과 같은 사회적 학습을 배우려고 노력한다.’라고 이야기했다.

아이들은 가까이 있는 본인을 따라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많은 사물이나 동물들을 따라서 행동하곤 했다. 한때 딸아이는 커서 포크레인이 되고 싶다고 했고 5살이 되면 공룡이 되고 싶다고 했다. 딸아이의 되고 싶은 대상은 부모에 국한되지 않고 주변의 모든 사물과 주변의 환경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가장 쉽고 자주 접하는 대상일수록 아이에게는 놀이의 대상이며 모방이 되는 대상이 되기도 했다.

【작 품 1】, 【작 품 6】, 【작 품 8】에서 그러한 모습들이 드러나는데 아이는 날고 싶어 했고, 힘이 세어지길 바라고, 만화영화의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한다. 어릴 적엔 한계를 정하지 않고 상상하고 그 상상력으로 어떠한 대상이 되곤 한다. 이는 들뢰즈<sup>11)</sup>의 ‘되기(devnir)<sup>12)</sup>’, ‘동물-되기’와

9) 한국교육심리학회, 『교육심리학 용어사전』, 학지사, 2000

10) Felix Warneken 펠릭스 바르네켄 하버드대학교 심리학 교수

11) Gilles Deleuze 질 들뢰즈 1925-1995, 프랑스의 철학자. 서구의 2대 지적 전통인 경험론, 범론이라는 사고의 기초형태를 비판적으로 해명했다. (두산백과)

비슷하다. 동물-되기는 실재하지 않는 대상의 동물이라도 실체가 가능하여 신화 속의 동물이나 동화책, 상상 속의 대상이 되기가 가능하다. 그 대상이 되는 것은 상상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현실에서의 특정한 신체적 표현으로 나타난다.

【작 품 6】 크앙 에서의 아이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공룡이라는 대상이 되고 싶어 했다. 아이는 상상하고 꿈꾸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공룡의 울음 소리와 공룡의 특징적인 모습들을 아이의 신체적 행동으로도 나타냈다.

인디언들이 얼굴에 문신을 세기거나 동물의 털을 뒤집어쓰고 힘의 상징인 동물과 자신을 동일시하여 그 동물과 같은 힘을 가지려 하거나 상징적인 존재가 되려 하고, 어떠한 동물의 몸짓을 모방하여 무술을 창안해서 특별한 힘을 가지려 하는 무술가들처럼 아이도 공룡이나 동물의 털을 쓰고 자신이 원하는 대상이 되려고 했다. 굳이 털을 뒤집어쓰거나 얼굴에 칠을 하지 않아도 아이는 【작 품 1】 독수리가 되고 싶은 참새의 작품처럼 단순히 팔을 뒤로 젖히고 뛰어다니는 것만으로도 독수리와 자신을 동일시하였다. 이러한 모습들은 굳이 철학자의 말을 빌려 분석하지 않아도 엄마인 본인의 눈에는 마치 새처럼 보이기도 하고, 공룡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다른 대상이 되어 보이기도 한다.

이처럼 아이는 억지로 꾸며내거나 어떠한 행동을 위해 계획하지 않아도 있는 그대로의 모습들은 순수하고 천진난만함을 담고 있었다. 모든 손짓과 발짓은 순수했고, 한마디의 말 속에서도 꾸밈없는 솔직함이 담겨 있다.

그 어떠한 사실주의적 작품도 있는 그대로의 실재를 다시 만들어 낼 수는 없다. 변형과 재구성이 필수적으로 들어가기 마련이다. 그리고 그 속에 드러나는 정서는 외적인 것의 재현이 아니라 내적인 것의 표현이다.<sup>12)</sup> 아이는

---

12) 들뢰즈와 가타리 '되기 (devenir)' 개념은 신체가 다른 신체와 결합하여 질적인 변화와 역량을 증가시키면서 신체를 새롭게 구성하고 생산하는 방식의 이론

13) 이주영, 『예술론 특강』, 미술문화, 2007, p.18

본인의 작품에서 정서적 의미와 내적 표현의 상징적인 대상이다. 아이와 함께 등장하는 애착 인형 또한 아이가 부모에게 가지는 애착과 부모로서 아이에게 느꼈던 감정들이 담겨 있는 대상이다. 아이의 행복한 모습들과 친진난만한 모습을 작품으로 재현함에서 그치지 않고 본인이 느꼈던 행복함과 위안받았던 감정들을 아이의 모습으로 표현하였다.

## 2) 애착 대상으로서의 인형

아이는 태어나 엄마와 1차 적인 애착 관계를 형성하고, 이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애착 인형이라는 과도기적 중간 대상을 가지게 된다. 아이가 절대로 곁에서 떨어뜨려 놓지 않고 가지고 다니는 인형이나 담요 등을 일컫는데, 이 과도기 대상의 등장 시기는 보통 생후 4개월에서 12개월 무렵 즈음이다. 애착 인형은 아이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대부분 어머니를 연상시키는 부드럽고 포근한 물건들이기 때문이다. 아이는 신생아 시기부터 부모와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보살핌을 받으며 지내다 유아기가 되면서 차츰 접촉하는 시간이 많이 줄어드는데, 그러면서 분리 불안 현상이 일어난다. 그 분리 현상으로 부터 오는 불안감을 애착 인형이 보호해주는 역할을 한다. 아이는 부모와 분리되어있는 잠시의 시간 동안 애착 인형이라는 중간 대상<sup>14)</sup>을 통해 진정하고 안심하며 혼자 있는 방법을 배우게 되는 것이다. 아이는 애착 인형을 자신의 놀이 혹은 보호의 대상, 때로는 부모라고 생각하게 된다.

유아는 환상 또는 상상력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어른들과는 달리 내적 현실과 외적 현실 사이의 구분이 모호하다. 그 결과 객관적 현실과 주관적 현실 사이의 이동을 안전하게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것들을 연합시키는 경험의 중간영역이 발생 되는 것이다. 이 영역은 순수한 외적 현실도 아니고 또한 순수한 내적 또는 심리적 환각도 아니다.<sup>15)</sup>

14) 중간대상[Transitional Object] 중간 대상은 유아가 갖게 되는 최초의 소유물로서, 스트레스 상황이나 잠자리 갈 때 또는 일차적 애정 대상으로부터 감정적으로 분리해 가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보통 부드러운 담요나 장난감 등의 물건을 가리킨다(Winnicott,1953). 중간 대상은 종종 어머니를 생각나게 하는 고유한 냄새와 느낌을 가진다. 이것은 어머니가 옆에 없을 때 위로해주고 달래주는 어머니에 대한 환각을 유지시켜 준다. 또한 이것은 걸음마 아동에게 더 큰 자율성을 준다. 어머니는 자신의 통제 아래 있지 않지만 중간대상은 자신의 통제 아래 있기 때문이다. 원 대상은 두 살에서 네 살 경에 포기되지만, 이후에 장난감들은 계속적으로 아동에게 위안을 줄 수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15) 마델레인 데이비스, 데이빗 윌브릿지, 『울타리와 공간』, 이재훈 역, 한국심리치료연구소, 1997, p.75

이 과정은 프로이트의 이론과 관계가 있다. 프로이트는 자신의 딸을 관찰하다가 아이가 실패를 가구 밑에 숨겼다가 다시 꺼내 놀면서 즐거워하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이 반복적인 놀이가 심리 발달에 중요한 구실을 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즉 엄마의 존재와 부재를 상징화하는 것이다.<sup>16)</sup>

아이들은 주로 포근하고 따뜻한 질감의 인형이나 담요에 집착하게 된다. 본인의 아이도 인형을 하루종일 가지고 다니기 시작했고, 아이는 때때로 그 인형을 엄마 혹은 아기라고 부르며 소꿉놀이를 하고 이불을 덮어주며 잠을 재워주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어느 상점에서 사준 오랑우탄 인형이 본인의 아이에겐 그러한 중간대상이 되었다. 한시도 그 인형을 손에서 놓으려 하지 않았다. 본인이 아이를 업고 다닌 것처럼 인형을 등에 업고 다니는 시늉을 하고, 소중히 안아주기도 하며 밥을 먹이는 시늉을 했다. 그 모습을 표현한 작품이 【작 품 4】, 【작 품 5】 작품들이다. 아이에게 인형은 부모만큼이나 중요한 대상이었고 때로는 엄마를 대신하고 놀이의 대상이기도 하였다. 그 인형들은 때로는 엄마가 되기도 하고 아빠가 되기도 하며 아이의 놀이에 큰 역할을 하였고 본인의 작품에서 아이와 함께 표현되었다. 【작 품 4】 기대어 앉아 는 아이와 애착 인형의 교감이 곧 아이와 본인의 교감을 나타내는 작품이다.

【작 품 5】의 경우에는 오랑우탄 인형 외에 곰 인형 형상도 나타나는데, 이는 본인의 배우자, 아이의 아빠를 상징한다. 실제로 아이는 곰 인형을 아빠와 동일시하여 정서적 유대감을 가지고 있고, 같이 있으면 심리적 안정감을 가졌다. 【작 품 2】에서는 아이가 애착 인형을 업고 있는 형상을 하고 있다. 현실에서는 늘 본인이 아이를 업어주었지만 아이는 엄마라고 부르는 인형을 등에 업고 본인이 아이에게 그랬던 것처럼 아이는 본인과 동일시한다. 본인은 어부바를 일종의 스킨십이자 아이와의 교감의 행위라고 본다.

---

16) 사우 험마 카노바스, 『엄마라는 직업』, 유혜경 역, 이마, 2016, p.89

업어주기와 안아주기 또한 유아의 신체적이고 심리적인 성장과 발달에 속하는 매일의 작은 변화들이 뒤따른다. 안아주기는 어머니가 자신의 사랑을 유아에게 보여줄 수 있는 특별한 형태의 사랑이며 유일한 방법이다. 이러한 안아주기는 유아로 하여금 첫 대상관계를 확립하게 하고 본능 만족의 첫 경험에 이르게 한다. 17) 본인에게 받았던 사랑의 형태를 아이는 중간대상인 애착 인형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모습들을 본인은 부모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작품으로 표현코자 하였다.

이처럼 작품 곳곳에 중간대상이 나타난다. 중간대상들은 아이에게 당시에 필요한 대상이기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중간기를 상징하는 추억의 물건이 되기도 한다. 본인이 가지고 놀던 어릴 적 장난감을 본인의 어머니가 오랜 시간 간직해오시다 꺼내어 서로 추억을 공유하며 그 시절을 떠올리곤 한다. 아이에게 소중한 물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부모의 소중한 추억의 물건이 된다.

본인의 작품도 내 아이의 중간기를 거치며 성장해온 육아일기처럼 시간이 지난 후에 꺼내 볼 수 있는 아이의 추억이 되고, 본인의 추억이 될 것이다.

---

17) 도널드 위니캣, 『성숙과정과 촉진적 환경』, 이재훈 역, 한국심리치료연구소, 2000, p.68

### 3. 작품 분석



【작 품 1】 독수리가 되고 싶은 참새

## 【작 품 1】 독수리가 되고 싶은 참새

연 도 : 2018

크 기 : 250×180×380mm

재 료 : 브론즈, 오일파스텔 채색

### 제작방법

1. 팔을 뒤로 젖힌 채 뛰어가는 아이 형상을 유도로 모델링 하여 브론즈로 캐스팅 한다.
2. 오일파스텔을 이용하여 채색한다.
3. 무광 바니쉬 스프레이를 이용해 마감한다.

### 작품 설명

아이는 두 팔을 뒤로 젖힌 채 머리를 휘날리며 해맑은 표정을 하고 뛰어가는 형상을 하고 있다. 왼발을 땅 끝에 닿은 채 곧 하늘로 날아갈 것 같은 형상이다. 지치지도 않는지 매일같이 작은 팔과 다리로 뛰어다니며 즐거워하고 행복해한다. 아이는 독수리라고 외치며 뛰어 다녔지만 엄마의 눈에는 마치 작은 참새 같아 보였다. 작은 참새처럼 정신없이 온종일 뛰고 있는 아이를 보고 있으면 혼이 쏙 빠지다가도 순수하고 해맑은 그 얼굴과 마주치면 힘들었던 마음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라져 버린다.

이러한 천진난만한 감정을 표현키 위해 아이들이 쓰는 오일파스텔을 이용해서 동심을 더욱 잘 표현토록 하였다. 아이가 입은 팬티에는 하늘과 구름을 그려 자유롭게 뛰고 싶은 아이의 마음을 표현하였다.



【작 품 2】 어부바

## 【작 품 2】 어부바

연 도 : 2018

크 기 : 250×200×600mm

재 료 : FRP, 오일파스텔

### 제작방법

1. 아이가 인형을 어부바하고 있는 형상을 유도로 모델링한다.
2. 석고로 캐스팅한 후 합성수지로 원형을 만든다.
3. 원형 수정 후 오일파스텔을 이용하여 채색한다.
4. 무광 바니쉬 스프레이를 이용해 마감한다.

### 작품설명

이 작품은 아이가 오랑우탄 인형을 등에 업고 해맑게 웃고 있는 형상을 하고 있다. 등에 업고 있는 인형은 아이가 평소 좋아하는 애착 인형이었고 엄마 인형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

엄마가 아이와 밀착되어 교감하는 방법들은 수없이 많지만, 아이가 자라나면서 가장 많이 하게 되는 스킨십 중 하나는 어부바가 아닐까 싶다. 아이의 가슴과 맞닿은 등은 온전하게 아이의 체온을, 아이는 엄마의 체온과 함께 포근함을 느낄 수 있다.

아이의 애착 인형은 작가 본인이 되어 아이와 얼굴을 마주하고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다. 인형의 포근한 질감을 주기 위해 표면 질감에 터치를 주었고 여러 가지 색들을 겹쳐 채색하여 따뜻한 느낌을 표현하였다.



【작 품 3】 또오?

### 【작 품 3】 또오?

연 도 : 2018

크 기 : 200×600×340mm

재 료 : FRP, 오일파스텔

#### 제작방법

1. 아이스크림 형상을 하고 있는 모자를 쓴 아이 얼굴을 유토로 모델링 한다.
2. 석고로 캐스팅한 후 합성수지로 원형을 만든다.
3. 원형 수정 후 오일파스텔을 이용하여 채색하고 별모양 장식을 부착한다.
4. 무광 바니쉬 스프레이로 마감한다.

#### 작품설명

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을 아이 머리에 얹어 해학적으로 표현 한 작품이다. 아이는 아이스크림 생각에 입맛을 다시는 사랑스러운 표정을 하고 있다. 파스텔 톤으로 전체적인 색감을 채색하고, 아이가 좋아하는 딸기 맛 아이스크림색과 피스타치오 맛 아이스크림색으로 채색하였다. 아이스크림에는 작은 별 무늬를 부착하여 아이스크림의 다양한 토핑과 새콤달콤한 재미있는 맛을 표현토록 하였다.



【작 품 4】 기대어 앉아

## 【작 품 4】 기대어 앉아

연 도 : 2018

크 기 : 250×250×300mm

재 료 : FRP, 오일파스텔, 인형오브제

### 제작방법

1. 눈을 감고 앉아 있는 아이 형상을 유토로 모델링 한다.
2. 석고로 캐스팅한 후 합성수지로 원형을 제작한다.
3. 원형을 수정한 뒤 오일파스텔을 이용해 채색한다.
4. 무광 바니쉬 스프레이로 마감한다.
5. 실제 아이의 애착 인형과 등을 기대고 앉아 있는 형태로 자리 잡아 준다.

### 작품설명

아이의 오랑우탄 인형 오브제와 등을 기대고 앉아 있는 형태로 제작되었다. 오랑우탄 인형은 아이가 집에서 실제 가지고 놀던 인형을 가져와서 같이 앉혀 놓았는데, 이는 일상에서 지친 작가 본인의 모습이자 일상에 지친 여느 엄마의 모습이기도 하다. 인형의 시선은 아래를 향해 있고 늘어진 어깨는 육아에 지친 엄마의 모습인데, 이와 상반되게 아이는 고개를 살짝 들고 열린 미소를 짓고 있다.



【작 품 5】 고요한 밤

## 【작 품 5】 고요한 밤

연 도 : 2018

크 기 : 250×40×320mm

재 료 : FRP, 오일파스텔

### 제작방법

1. 인형과 함께 누워서 잠든 아이 형상을 유토로 모델링 한다.
2. 석고로 캐스팅한 후 합성수지로 원형을 제작한다.
3. 원형 수정 후 오일파스텔을 이용해 채색한다.
4. 무광 비니쉬 스프레이로 마감한다.

### 작품설명

아이가 잠든 순간은 정말 고요하다. 하루 종일 웃고 뛰고 정신없이 지내다 갑자기 찾아온 고요함은 엄마가 가장 기다린 시간 중 하나다. 인형들 사이에서 잠든 모습을 보고 있으면 지나간 하루의 일과가 스쳐 지나간다. 아이에게 풍족하게 해주지 못한 것, 참지 못하고 화를 냈던 일, 천진난만한 웃음 소리가 겹쳐진다.

아이의 옆에 같이 잠들어 있는 인형들은 실제 애착 인형들을 형상화한 것들이다. 곰돌이 인형은 아빠를, 오랑우탄 인형은 엄마를 상징하는 애착 인형이다. 그 인형들 사이에서 편안한 표정으로 웅크려 잠이든 아이의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워 보였다. 엄마와 아빠 사이에서 행복한 꿈을 꾸고 있을 아이를 표현하기 위해 아이의 머리에는 밤하늘의 별을 표현하였다.



【작 품 6】 크앙

## 【작 품 6】 크앙

연 도 : 2018

크 기 : 240×300×720mm

재 료 : FRP, 오일파스텔

### 제작방법

1. 공룡 모자를 쓰고 공룡 흉내를 내는 아이의 형상을 유도로 제작한다.
2. 석고로 캐스팅한 후 합성수지로 원형을 제작한다.
3. 원형 수정 후 오일파스텔을 이용해 채색한다.
4. 매트 바니쉬 스프레이로 마감한다.

### 작품설명

아이는 성장하면서 하고 싶은 것도, 되고 싶은 것도 많아졌다. 그 모습은 순수하고 한편으로는 단순한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으로 ‘공룡이 크고 멋져서’ 라든가, ‘포크레인은 다른 자동차랑 다르게 팔이 달려 있어서’ 등의 이유였다. 아이는 무언가가 되는 것에 한계와 어려움을 두지 않고 상상하고 꿈꾸는 그 모습이 엄마의 눈에는 너무 사랑스러워 보인다.

5살이 되면 공룡이 되고 싶다는 딸아이의 모습을 공룡 모자와 꼬리를 달고 정말 공룡이 된 것 마냥 흉내 내는 모습을 표현하였다. 공룡 모자와 꼬리는 아이의 천진난만한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 낙서하듯 채색하였다.



【작 품 7】 나 이쁘지이

## 【작 품 7】 나 이쁘지이

연 도 : 2018

크 기 : 250×150×450mm

재 료 : FRP, 오일파스텔

### 제작방법

1. 머쓱하게 웃으며 엄마를 바라보는 아이의 형상을 유토로 모델링 한다.
2. 석고로 캐스팅한 후 합성수지로 원형을 제작한다.
3. 원형 수정 후 오일파스텔을 이용해 채색한다.
4. 매트 바니쉬 스프레이로 마감한다.

### 작품설명

어렸을 때 여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어릴 적 엄마의 화장대에 손을 댔던 기억이 있을 것이다. 화장대 위에는 반짝이고 알록달록한 예쁜 화장품들이 가득했고 엄마 몰래 얼굴에 화장품으로 낙서를 하다 걸리면 크게 혼나기도 했던 기억 말이다. 본인이 잘못된 줄도 모르고 얼굴에 화장품을 바른 채 해맑게 웃는 아이를 쉽게 다그칠 수가 없었다. 마치 ‘엄마 날 보고 웃어봐요’라며 엄마의 힘든 일상에 작은 웃음을 선물해주는 것 같다.

아이의 얼굴에는 엄마의 립스틱을 어설피게 발라놓아 우스꽝스럽기도 하지만 아이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엄마를 올려다보고 있는 형상으로 제작되었다. 발밑 좌대는 하트 모양으로 표현하였는데 잘못된 아이의 모습조차도 사랑스러워 보이는 엄마의 마음을 강조하였다.



【작 품 8】 청개구리

## 【작 품 8】 청개구리

연 도 : 2018

크 기 : 230×150×450mm

재 료 : FRP, 오일파스텔

### 제작방법

1. 청개구리 모자를 쓴 채 팔을 들고 낙서하는 아이 형상을 유토로 제작한다.
2. 석고로 캐스팅한 후 합성수지로 원형을 제작한다.
3. 원형 수정 후 오일파스텔을 이용해 채색한다.
4. 매트 바니쉬 스프레이로 마감한다.

### 작품설명

본 작품은 아이가 손을 뻗어 벽에 낙서하는 형상으로 제작되었다. 아이는 청개구리 모양의 모자를 쓰고 있는데 이는 제목에서 볼 수 있듯이 3살~4살 시기의 아이들이 청개구리처럼 말을 듣지 않는 모습을 형상화하기 위해서 표현한 방법이다.

입고 있는 옷에는 아이가 그려놓은 것 같은 낙서 무늬를 넣어서 벽에 낙서하고 있음을 표현하고, 작품에 드러난 행동들마다 옷의 무늬를 상황에 따라 달리 표현하였다.

### Ⅲ. 결론

본 논문은 본인의 딸아이의 천진난만한 모습들을 엄마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느끼는 감정들에 관해 이야기하고, 딸아이의 꾸밈없는 천진난만한 모습들을 작품으로 형상화하여 표현한 작품들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본인이 아이를 키우며 처음 느껴본 부모로서의 어려움과 갈등들은 아이의 해맑고 천진난만한 모습들로 하여금 위로를 받고 때로는 용기가 되어 엄마로서 또는 하나의 인간으로서 성숙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아이는 지금 이 시간에도 자라나고 있고 본인은 아직도 부모로서 많이 부족하고 배우고 겪어나갈 일들이 수 없이 많지만, 이번 작업과 연구를 통해 부모로서 작가로서 앞으로 본인 작업의 방향을 잡는 척도가 되는 기회가 되었다.

나아가 작품을 제작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작품을 전시장에서 전시를 하며 많은 관람객들과 대화를 하였다. 대부분은 딸아이와 비슷한 나이의 아이를 키우는 가정의 부모, 혹은 키워내고 난 부모들이었다. 본인의 작품이 그들의 그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매개체가 되어 그때의 기억들을 떠올리게 되고 공통의 화제 거리로 그날의 추억에 대해 대화 할 수 있었다.

작가 본인의 개인적 이야기에서 시작되었지만 모든 세상의 어머니들이 겪는 이야기고 나의 어머니가 겪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작업에 의미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라 생각된다. 본인의 작품이 본인의 이야기를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많은 이들과 소통의 수단이 되고, 그들의 추억을 떠올리고 그 시간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매개체가 됨을 기쁘게 생각한다.

이번 연구를 통해서 작가 본인이 어머니로서 아이를 통해 느꼈던 행복한 감정들을 아이의 천진난만한 모습들로 작업하였다. 아이와 함께 표현한 애착 인형은 아이에게 놀이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중간대상의 역할로 등장하여 아이와 어머니와의 애착 관계에 대해 표현하였다. 또한, 작업을 하면서 지금

의 순간들과 작품들이 언젠가는 추억으로 떠올릴 날이 올 것이라 생각한다. 앞으로도 작품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여, 나중에 딸아이가 봤을 때 추억으로 떠올리고 작가 본인에게도 당시의 감정들을 담아둔 일기장이 되길 바란다.

본 논문을 마치며 본인 스스로가 많이 성숙해지고, 조금 더 다른 관점에서 바라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작업 뿐 아니라 육아에 있어서도 부모로서 어떻게 더 노력을 하고 발전 할지 고민하는 시간들이 되었다. 지금도 육아에 매진하는 모든 어머니들의 수고로움과 본인을 길러주신 부모님의 노고를 다시 한 번 느꼈고, 앞으로도 딸아이의 성장과 함께 작업을 계속 이어나가고, 작품을 통해 공감과 소통할 수 있도록 확장해 가고자 한다.

## 참 고 문 헌

### 《단행본》

- 안느 르페브르, 『100%위니캣』, 김유빈 역, 한국심리치료연구소, 2016
- 사우 험마 카노바스, 『엄마라는 직업』, 유혜경 역, 이마, 2016
- 해밀턴 N 그레고리, 『대상관계 이론과 실제』, 김창대, 이지연, 김진숙 역, 학지사, 2007
- 도널드 위니캣, 『성숙과정과 촉진적 환경』, 이재훈 역, 한국심리치료연구소, 2000
- 마텔레인 데이비스, 데이빗 윌브릿지, 『울타리와 공간』, 이재훈 역, 한국심리치료연구소, 1997
- 한국교육심리학회, 『교육심리학 용어사전』, 학지사, 2000
- 커제즈 진, 황성원 역, 『부모가 된다는 것의 철학』, 클, 2019
- 피이오자 이자벨, 김성희 역, 『부모의 심리백과』, 알마, 2009
- 이주영, 『예술론 특강』, 미술문화, 2007

### 《홈페이지 및 기타》

- NAVER 지식백과 중간대상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655918&cid=48639&categoryId=48639>
- NAVER 지식백과 푸토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264861&cid=42635&categoryId=42635>

## ABSTRACT

A study on representation of figure of innocent child

– Focusing on my work –

Choi, Ha Na

Department of Sculpture

Graduate School of Sculpture

Sungshin Women' s University

The unavoidable experiences of living as a human being are four phases of life. None of them fully remember and recognize the beginning and end of their lives. However, parents have a remarkable time to see the wonderful start of their child's life.

It was also a great pleasure to watch that one life was born and a new time began to be gradually shaped and human requirements are fulfilled. In such a process, not only pleasure exists but also all the triumphs and tragedies do. Not only did she become a mother of one child to watch remarkable times of daily life, but she grew up as a mother along with her child's growth, and cured by her child's innocent in her life. I wanted to express the experiences and feelings that I felt as a mother through my daily life with the child in the work of figure of such innocent child, which was the pain and

joy of creating a work as a writer like the difficulties of parenting a child as parents. This paper represented and analyzed the happiness and joy given by the child's figure as well as the difficulties and overcoming as a parent, watching and experience a child with parents' eye.

This paper consists of 3 pages describing the background of formation of the work and how to represent it, focusing on the works submitted for the 2018 exhibition of requirements for a master's degree

The introduction of chapter 1 describes the purpose of the study and its methodology.

The main body of chapter 2 describes the background of formation of the work and how it was represented that are basis of my work, and the analysis of the work describes the formative characteristics and the method of production.

The conclusion of chapter 3 suggests the direction of the work ahead, and deals with the content and the work of this paper collectively.